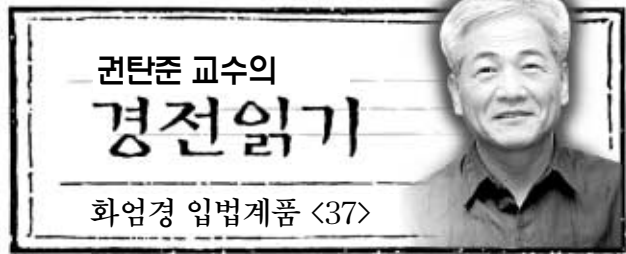


선재동자는 무염죽왕의 가르침에 따라 묘광성에 이르러 대광왕(大光王)을 만나 법을 구하니,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인자한 것’의 행(大慈幢行)을 닦으며 그것을 충분히 성취하였다. 나는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을 듣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닦아서 장엄하였다. 나는 이 법으로 왕이 되었고, 이 법으로 가르치고 거두어 주며 수행하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서 인자함으로 근본을 삼아 인자한 힘을 갖추게 한다. 그리하여 인력한 마음·불쌍히 여기는 마음·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항상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해준다.

나는 이 법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기쁘며, 몸에는 괴로움이 없고 마음은 청량하며, 생사의 애착을 끊고 정법으로 살아갈 줄을 알게 하며, 번뇌의 더러움을 씻고 나쁜 업의 장애를 깨뜨리며,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진정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중생의 길을 끊고 온갖 지혜를 구하며, 마음바다를 깨끗이 하여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내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인자한 것’의 행’에 머물러서 바른 법으로 세상을 교화한다. 선남자여,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중생은 모두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선남자여, 이 묘광성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보살들로서 대중의 뜻을 내었으며,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다. 어떤 이는 이 성이 좋다고 보고 어떤 이는 이 성이 넓다고 보고, 흠과 자갈로 땅이 된 줄로 보기도 하고 여러 보배로 장엄한 줄로 보기도 하며, 흠을 모아 담을 쌓은 줄로 보기도 하고, 보배로 쌓은 담이 풀리었다고 보기도 한다. 선남자여, 만일 중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37>

대광왕의 법문

인자한 마음 으뜸되는 삼매법문은

자비심 근본으로 중생 교화하는 구제법

생이 마음이 청정하고 선근을 심거나, 부처님께 공양하여 온갖 지혜의 길로 나아가 갈 마음을 내어서 거기에 끝까지 이르러 하거나, 내가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적에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면 이 성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고 보지마는 다른 이들은 더러운 줄로 보게 된다.

선남자여, 이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오락 악세에서 나쁜 짓을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구호하여 보살들의 ‘인자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라주는 삼매’에 들어가게 한다.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중생들이 가졌던 무서워하는 마음·해롭게 하는 마음·원수로 생각하는 마음·다투는 마음들이 모두 소멸되나니 왜냐하면 보살들의 ‘인자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라주는 삼매’에 들어

가면 으뜸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면 마땅히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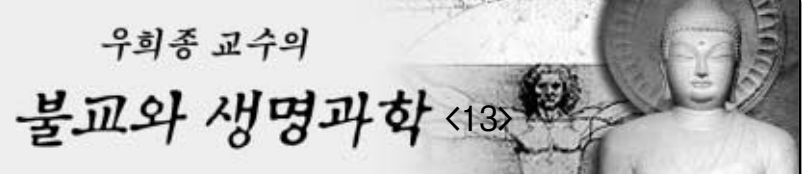
이때에 대광왕이 이 삼매에 들어가니 그 성의 안팎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보배 땅·보배담·보배강·보배궁전·보배누각·보배침·보배차 등 모든 것에서 묘한 음성을 내며 왕을 향하여 경례하며, 묘광성 안팎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환희왕야하면서 왕이 있는 데를 향하여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왕의 처소에 가까이 있던 새와 짐승들도 서로 쳐다보고 지반한 마음을 내어 왕을 향하여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산과 들과 초목들도 두루 떨면서 왕을 향하여 예경하고 꽃과 물과 샘과 강과 바다가 모두 넘쳐 솟아서 왕의 앞으로 흘러갔다. 일만의 용왕과 천왕들이 허공에서 풍악을 연주하고, 무수한

천녀들은 노래하고 찬탄하면서 수없는 꽃구름을 비내리며 왕에게 공양하였다.

또 한량없는 나찰왕·아차왕 등 악독한 중생들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중생을 해치던 것들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익된 일을 행하며, 후세의 과보를 분명히 알고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며, 공경하고 합장하여 왕에게 예배하였다.

이때 대광왕이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크게 인자함이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라주는 삼매’의 법문을 보살이 대자비를 근본으로 해서 세간의 여러가지 중생들을 교화하여 구제하는 법을 설한 것이다. 대중의 보살행은 어디까지나 중생을 위한 크나큰 자비심이 근본이고, 그것이 구제책으로 활동 작용하여 여러 가지 지혜로 나타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왕의 이름이 대광(大光)인 것은 항상 중생들을 크게 이름해 해주고자 하는 삼매의 빛으로써 여러 중생들을 비추어 그들을 이롭게 하고 자유자재하게 교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대자비는 참으로 커다란 힘이 있어서 중생들의 잘못되고 악한 마음을 바로잡아 선업을 짓게 하며, 그것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보고 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광왕이 ‘크게 인자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라주는 삼매’에 들어가니 주변세계가 아름답게 변하고 악독한 중생들이 악업을 그치고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회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3>

차이와 차별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화단을 볼 때면 우리는 우선 그 찬란한 꽃들의 모습에 감탄함과 동시에 그 화단을 굽게 가꾸어낸 주인의 마음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따름을 수많은 꽃들에 비하여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한편, 벌레 먹어 죽어가는 풀도 있고 잘 자라는 풀도 있지만, 벌레 먹어 죽어가는 풀이 있기에 배불리 먹고 잘 자라는 벌레도 있음을 생각할 때 다양한 이 세상 모든 것은 병든 것이나 건강할 것이나 모두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이렇듯 자연계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름답다, 보기 싫다, 선하다,

명제를 조차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오만인지도 잘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연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각자 제 모습대로 그대로 여여히 드러내어 모두 다 제 몫을 하면서 제 모습대로 천하의 기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에 구족한 것이다. 왜 내가 괴로움 속에 있어야만 되느냐고 묻지 않아야 한다. 자기가 지은만큼 받을 뿐이니 무엇을 버릴 것이요, 무엇을 취할 것인가. 그것은 마치 장미만 있는 세상이 보기 흉한 것과 같이, 또 아름다운 꽃도 곧 지고 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본디 괴로움도 아닌 우리의 환상이듯이.

우리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사멸의 성주괴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

오락이 있기에 청정이 돋보이는 이치

‘집착’이 ‘화엄세계’ 파괴하는 근원

악하다, 길다, 짧다 등등의 많은 기준을 지니고 분별하며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청정한 것만을 취하려 한다. 그러나 소위 뜻난 것이 있어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뜻난 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오락이 있기에 청정이 있음을 알 때 오락과 청정은 상호의존의 관계요, 때려야 될 수 없는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된다. 여지 생과 사가 돌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화단의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만들고자 그 주위에서 속아버린 튼튼하지 못한 꽃들과 이따름을 잡초들의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아름답다는 기준이 얼마나 인간만의 횡포이며, 더 나아가 소위 생명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취향에 맞게 자연의 생

음이 없는 생명과학은 허공꽃을 찾아 헤매는 격임을 알아 다양한 생물종으로 장엄된 이 화엄세계를 파괴하는 우리의 집착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비록 본 마음자리에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바 없으나 돌에 짓눌린 잡초 하나를 곧 바로 꺾는 한 손길, 주위에 헐벗고 고통 받는 이에게 작은 것 하나 해주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주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다. 오늘도 이 화엄세계를 이루는 한 생명체로서 모든 생명과 하나로 존재함에 무한한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더 나아가 아름다운 꽃, 솔로없는 집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나니 나와 너의 기쁨이 온 우주의 기쁨이 되며, 나와 너의 아픔이 온 세계의 아픔이 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른 즐거움으로 보상된다. 그러나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그 문제는 그러면 즐거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삶은 괴로움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저 단순한 열세주의라고 여기면 짧고 얕은 이해, 아니 오해이다.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하여 가장 근본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니,

아무튼, 그러면 태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대목부터 심이연기설이 무척 어려워지는데,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보았자 팔지만 아프니까 이것도 일단 매우 단순화시켜서 이해해보기로 하자. 아시다시피 심이연기의 꼭대기,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한 개별자로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무명(無明), 즉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명에서부터 태어나서 이르는 그 사이의 복잡한 이야기는 참 알아듣기 어렵다.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 펼치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선의 세계 ⑩

적지인심-9

열한 수행 끝에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는 분명히 생사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얘기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사를 극복하였다. 어떻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가모니는 생사 문제라는 것이

“태어났으니까”이다.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안 당하려면 안 태어나면 된다. 언뜻 들으면 농담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농담이 아니라 심각한 얘기이다. 세상은 고탘(苦海), 즉 삶은 괴로움의 바다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

생사의 문제, 그 자체가 원래 없으니...

원래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워낙 문제가 아니었으니 해결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가 생사라는 것이 있다고 여겼으므로 생사를 겪고 그것을 문제로 삼을 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내놓은 것이 심이연기설(十二緣起說)이다. 왜 늙고 병들어 죽는가? 심이연기설에서 이에 대한 답은

이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 느니, 성격이 나빠 좋은 대학교에 못 간다 느니, 키가 작아 고민이라느니, 먹고살기 힘들다느니 등등 시시콜콜한 문제가 아니라, 생사라는 정말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를 볼때다 보니까 그런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시콜콜한 작은 괴로움들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으며, 그 자

저 효사는 「육임(六壬)」 지방 강의를 재개(再開)합니다

저는 금번 전국 여러 어른들의 요청에 따라 아래 지역에 육임학당을 직접 개설하고 매주 직강(直講)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각위(各位)께서는 이번 기회에 저와 육임 공부의 인연을 지어 활인천역(活人天役)에 큰 활용 되시기를 권하옵고, 저는 신명을 바쳐 실기(實技) 위주의 육임을 알려 드리므로써 단기간에 좋다는 육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육임은 모든 술법에 앞서는 정확 기민한 오행술입니다. 우리 활인천역자가 인연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 습득해 둘 필요가 있는 고등술법인 것입니다. 이번 저의 지방강의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오니 등록하십시오. 후회없는 3개월이 될 것입니다.

강의 일시 및 장소

- 육임학당 「광주속」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15일 시작 (중전의 「광주속」은 장소·지회장·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진주속」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23일 시작
- 육임학당 「부산속」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24일 시작
- 육임학당 「대구속」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25일 시작 (중전의 「대구속」은 장소·지회장·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호사속」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현재 제 6기 진행중(10월 14일 금 - 제 7기 시작)
- 육임학당 「전주속」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27일 시작
- 육임학회회원 지도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무료) 현재 정기 지도 강의중

신 간 안 내

「각일 각시 출생자 운명예언 비법」

- 태아(胎兒) 선택 분만吉日吉時 선정 -

우리가 선택 분만에 따른 길일 길시를 뽑게 될때 매우 지난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번 써 놓은 이 책을 사용하시면 60갑자 각 일과 각 시간에 따른 출산 길흉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한 눈에 살펴 길일 길시를 선정 할수 있고, 또 여러 날과 여러 시간을 순서적으로 잡아 줄 수 있게끔 해냈습니다. 이 책의 활용요령은 비디오와 CD에 담아 책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것을 보시면 인연따라 더욱 크게 활용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주동세운은 기초」, 「격복 용신잡는 원칙」, 「여자 성(性)능력 판단」 등이 실려있습니다.

- 값 7,000원

●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명란 도서출판 卜團

■ 수강료는 3개월 150만원(호사육임강의록 상·하권 - 값 410,000원 - 교재로 드림)입니다. 본 강의록을 이미 구입하신 분은 수강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는 02-996-3335로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효사